

간월간 1999년 10월 10일 · 통권 19호 · 고용평등추진본부 발행
1996년 9월 20일 등록 · 등록번호 마2617

평등

제19호 1999년 9 · 10월



살맛

특집 직장 폭력의 무법지대!

평등의 대화 소설가 배수아

현장의 소리 한국은행 신인사제도 '직렬폐지' 투쟁승리

이의제기 여직원만이 유니폼 착용 - 경제적 합리성, 그 이면의 숨겨진 차별

농협측의 반론 우리는 죄 없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평등

제19호 1999년 9·10월

- 백영경 4 역사 속의 그 사건 차리리 마녀가 된 여자들
- 이현옥 7 몸예세이 월경이야기
- 이인숙 8 우리도같이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 강혜란 10 TV가 보인다 드라마 '장미와 콩나물' '마지막 전쟁' 이 ...
- 13 함께 참여합시다 남녀차별해서 뽑는 회사, 혼내주자!
- 문정민 14 평등의 대화 소설가 배수아
- 16 특집 직장, 폭력의 무법지대!
- 서민자 17 직장내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 박봉정숙 20 평등법내 '직장내 폭언, 폭행 규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 문정민 23 직장내 폭력 근절을 향한 출발선!-서울대병원투쟁사례
- 정기란 26 현장의 소리 한국은행 신인사제도 '직렬폐지' 투쟁 승리
- 박홍주 29 이의제기 여직원의 유니폼 착용
- 배지선 32 할말 많습니다 공권력이 성폭력 가해자?
- 34 농협측의 반론 우리는 죄 없습니다! ... ?
- 김엘림 40 평등하이슈 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 개정논의
- 김미경 44 일터이야기 침묵을 넘어, 소리내어 권리찾기
- 장주아 46 공평하지 않은 게임, 그러나 승리를 위해
- 이은자 47 차별없는 세상을 기다리며
- 49 함께보는 상담노트
- 배수원 50 평등만화

평등의 창

10월은 남녀고용평등의 달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너무 조용하게 흘러간 듯 하다.

경제위기 이후의 여성우선해고,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숨쉬 여유조차 주지 않고 몰아쳐오던 불평등의 칼바람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남녀고용평등의 달'이라는 10월이 낯설기만 하다. 오히려 성차별적 구조조정으로 고소·고발 당한 농협측의 한심한 변론에 기도 안차는 너털웃음을 지어야 했던 남녀고용평등의 달.

하지만 낮놓고 조용히 주저앉아 있을수만은 없는 일!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벌이고 있는 행사모토, '20세기 차별버리기, 21세기 평등세우기'를 떠올려본다. 불평등으로 점철된 세기말을 극복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의 달, 10월'의 꼬트머리에서 투쟁의 각오를 다잡아본다.

보다 시끄럽게 소리지르기 위해! 평등한 21세기를 위해!

『평등』·격월간 발행일/1999년 10월 10일
 등록일/1996년 9월 20일 등록번호/마2617
 발행처/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발행인/정강자 편집인/송현미
 디자인/정태경 사진/윤미주
 기획·진행/박홍주·문정민·이인숙·박봉정숙·최명숙
 인쇄인/유홍종(삼영칼라)